

## (스튜디오R)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2021-06-22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남)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마늘과 이 마늘을 먹고 자란 한우까지. 남해 대표 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됩니다. 바로 보물섬 마늘&한우 축제입니다.

(여) 지난해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축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뵙겠습니다.

Q1. 벌써 16회 째를 맞은 마늘과 한우 축제입니다. 마늘과 한우를 같이 모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1.축제 기간은

Q2.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축제가 없었습니다. 판매행사만 진행됐는데 그만큼 올해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Q3. 올해는 관광문화재단이 전체 총괄을 맡았습니다. 최근 아주 기발한 광고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람보르고기. 우르소. B급 감성을 자극하던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3-1.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Q4.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축제에 꼭 오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네, 2년 만에 돌아온 보물섬 마늘&한우 축제가 성황리에 치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